강북문화재단, 학교복도를 전시장으로... '우리 학교는 미술관' 호평

송길태 기자 | 승인 2026.10.16 10:40

강북구 4개 학교서 작품 전시, 구민 도슨트가 학생들에게 직접 해설
2024년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우수사례 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 수상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사진=수유초등학교에서 복도에 전시된 작품에 대하여 구민 도슨트가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강북구청

(서울=국제뉴스) 송길태 기자 =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미술관」 사업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학교는 미술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일상 속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사업은 강북구 관내 학교의 복도와 유휴공간처럼 학생들에게 익숙한 장소에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 공간의 문화적 전환'과 '능동적인 예술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구민 도슨트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 작품을 해설하며, 학생들이 예술을 어렵고 낯선 대상이 아닌 친숙한 문화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올해는 수유초, 유현초, 인수초, 수유중 등 강북구 관내 4개 학교에서 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호응 속에 매년 사업 신청 학교도 늘고 있다.

재단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해, 앞으로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잇는 생활권 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북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이 특정 공간이나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태 기자 sktjw@kakao.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